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소비자 마음 사로잡았다

5만 9000여명 다녀가 10억 6000여만원 매출

무주군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무주읍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된 제2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에서 10억 6천여 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간 총 5만 9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147동에 이르는 농·특산물판매장에서만 5억 5천여 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해 농협 예약접수 판매를 통해서도 3억 7천여 만 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또 무주음식문화연구원과 부남면사무소 등지에서 운영했던 향토음식과 무주반딧불시장 야시장 등이 참여한 간식부스, 마을로 가는 축제와 와인동굴에서도 1억 4천여 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 2천여 만 원이 증가된 액수로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도시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무대와 판매 공간을 일원화해 집중도를



높이고 고객편의를 고려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한 점, 도시소비자들의 구입 패턴을 고려해 카드결제와 소포장 판매를 진행한 점 등이 주요했다는 반응이다.

황정수 군수는 "반딧불농·특산물만의 맛과 품질을 선보인 축제, 무주사람들 정성과 진정애 감동한 축제라는 명성을 또 한층 쌓은 만큼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을 안기고 소비자들에게는 신뢰와 건강을 선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장도보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바로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을로 가

는 축제를 비롯한 연계 여행코스 개발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는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한우경진대회를 비롯한 마을로 가는 축제와 즉석경매 행사, 친환경 농산물 품평·전시회, 향토 먹거리를 비롯한 간식먹거리, 반딧불이 머무란우 시식 및 판매 홍보관, 곤충체험관, 기능성 버섯 전시·판매, 고품지 배추김치 시식 및 절임배추 할인 예약판매, 농기계 전시·판매 행사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의 매력, SNS를 타고~’

군 농촌관광 UCC 공모전 시상

2016 무주군 농촌관광 UCC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6일 제2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대상(상금 100만 원)은 무주여행팀의 '중산마을, 농촌체험 쉼터'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상금 50만 원)은 미디어로 '우리들의 첫 무주여행'과 삼팔의 영상팀의 '무주에 가면 뭘가가 있다'가 받았다. 이외에도 한양대 영상팀의 '무주, 답아보다'와 2편이 우수상(상금 30만 원)을, 레인코트팀의 '무주를 즐께'와 3편이 장려상(소정의 상품)을 수상했으며, 전수성씨의 '반딧불이와 함께 한 힐링여행'의 9편이 입선(소정의 상품)에 올랐다. 수상자들은 '맛과 멋이 넘치는 무주에서 여행도 하고 무주에 대해 우리들이 느낀 그대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아 상까지 받으니 너무 기쁘다'며 "출품한 작품들이 무주의 매력을 알아보고 무주를 찾고 오고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6 무주군 농촌관광 UCC 공모전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즐기는 우리들의 힐링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농촌경관과 함께 즐기는 힐링, △여행, 축제, 역사, 사담, 추억 등 체험휴양마을의 농촌체험활동을 내용으로 한 작품 57편이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무주군 마을만들기사업소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과 네티즌 점수를 합산해 수상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공모가 참여자들에게 무주를 속속들이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모는 기회가 된 만큼 응모된 다양한 장르의 UCC 작품들을 SNS 홍보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인 반딧불시과 베트남 수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주반딧불시과 베트남 첫 수출

동남아시아 진출 발판 마련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영철)은 지난 4일 무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국내사 향과 맛이 뛰어난 명품으로 인정받은 무주반딧불시과 6톤을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베트남에 수출했다.

이날 황정수 무주군수, 정재호 지부장, 곽동열 조합장, 양승욱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반딧불시과가 베트남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개척에 나섰다.

이번 수출은 베트남에 있는 Klever Fruits(클레버 후르츠)라는 과일 전문프리미엄매장에 지난달 샘플 1톤을 보내고 베트남 소비자 반응이 좋아 베트남 업체 요청으로 수출이 진행되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 30여개 매장을 가진 Klever Fruits(클레버 후르츠)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베트남 시장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이대표는 "해의 농산물 수출은 내수 농산물 가격지지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춘 적극적인 마케팅과 시장개척을 위해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현장에 함께한 황정수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시과는 타지역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나 동남아시아 수출에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맛과 향이 뛰어나 무주반딧불시과가 동남아시아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릴 것"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전환기술전람회 '나는 난로다' 행사 11일 개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 고효율 화목난로를 한자에서 만날 수 있는 전환기술전람회 '2016 나는 난로다' 행사가 오는 11일부터 완주군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나는 난로다' 행사는 13일까지 완주군청 옆 로컬 에너지센터에서 대안 발전기술의 문화 확산과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자난로가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환기술 전람회는 따뜻한 적정기술을 나누는 적정기술 시장, 불을 다루는 장인들의 무대인 난로, 화덕시장 그리고 완주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로컬시장으로 나뉘어 열린다.

적정기술시장은 할매를 위한 적정기술 공모전에 참여하는 팀을 비롯해 적정기술 초대 및 기획부스 등 총 20개 팀이 참여한다.

난로, 화덕시장은 아마추어 난로 및 화덕, 기업 참여, 완성도 높은 전문가 팀 등 총 36개 팀이 여러 난로와 화덕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먹거리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로컬시장도 진행되며, 그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화목난로 경매 등 일일 문화공연과 함께 경품추첨이 매일 진행돼 고효율 화목난로를 쟁길 수 있는 기회도 준비돼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행사장은 △전국 고효율 자작 난로와 화덕의 자율 시장 △관객들이 직접 참여 가능한 체험마당 △로컬문화예술 시장과 전환놀이터 △완주군 로컬푸드 먹거리 장터 등이 오밀조밀하게 구성돼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화석연료 절약과 지역에너지 활용으로 지구도 지키고 서민들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이니만큼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우리가 무주농업의 주역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무주서 성황리 열려

무주군은 지난 5일 예체문화관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제2회 농업인의 날 행사(주관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농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제2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 기간에 열려 의미를 더했다.

진행된 기념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정관화), 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회장 임옥식), 한국농업경영인무주군연합회(회장 최원준), 한국여성농업인무주군연합회(회장 강향임), 무주군 4·H본부(회장 최왕진), 무주군농민회(회장 김준식) 회원 등 5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한국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회장 최원준)와 한국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회장 최원준)의 협약이 체결됐다.



제2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황정수 무주군수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풍면이 남다른 사명감과 애郷심으로 무주군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 라병현 씨(무주읍)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품평회에서 친환경농·특산물 부문 대상에 수상했으며 김병준 씨(무주읍)가 우수농산물 부문 대상을 받았다.

황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농업·농촌을 둘러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거리 생산 이외에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며

"이를 위해 유망 농·임·축산물을 육성하고 자연자원에 마을자원을 접목한 농촌관광 활성화 노력에 주력해 야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1만여 무주군 농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을 믿고 우리가 만들어 지켜가고 있는 반딧불 브랜드의 지력을 믿는다"며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군 농업 농촌 농업인 발전을 위해 서로의 걸음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성료

'2016 완주군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이 완주군 청소년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주최,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주관(관장 이종하)으로 지난 4일 봉동 생강골 공원에서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지역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6 로컬에듀 청소년 프로젝트 자율동아리'에 선정된 63개의 동아리가 한 해 동안의 활동 과정과 함께 자신의 소집과 적성을 개발한 결과를 마음껏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완주경찰서의 '행복한 청소년

을 위한 지역연계 캠페인'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소개합니다"를 비롯, 완주보건소의 '청소년 건강증진 실천마당', 완주군상담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이동 상담' 등이 호응을 얻었다.

김영숙 교육이동복지과장은 "청소년 동아리축제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 견학

장수군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군의 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와 농업의 만남! KIEMSTA 2016!'을 주제로 열린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에 지난 4일 참가했다.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농업기계 동향과 최신 첨단농업기계의 새로운 변화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개의 테마별 전시관과 특별관, 기업홍보관 등 9개의 전시관을 돌아보았으며,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농기계 견학과 농기계 재분야 기술이전업체 워크숍, 농기계 체험관을 견학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정례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는 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7일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한다.

위원회별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1월 8일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배성기)에서는 2017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남기)에서는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어지는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에서는 실과소,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건설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11월 2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변경 홍보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표지에 관한 기준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 표지를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관내 이동탱크저장소는 105개(진안군 41, 장수군 27, 무주군 37)가 있으며, 위험물 경고표지의 경우 이전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보제공 효과가 미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의 경고 표지가 국내 기준과 달라 혼동의 우려가 있었다.

올해 1월 22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운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쪽 측면에는 변경된 UN번호 및 그림문자로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한다.

조용주 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경고표지를 부착 할 수 있도록 개선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 청년 귀농귀촌캠프 '호응'

완주 청년 귀농귀촌캠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완주 삼태 삼삼오오 게스트하우스 등 완주군일원에서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 청년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완주군 농업농촌활력정책 소개, 지역공동체 예바람 및 청년협업농장 견학 등 완주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네트워크 파티에서는 선배 귀농귀촌인의 경험을 들으며 구체적으로 자기에 맞는 농촌 삶을 고민했고,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과 만남의 시간도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강령서 농업농촌식품과장은 "청년 귀농귀촌캠프는 청년들이 완주군에 안정적인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살릴했던 진안시장이 내방객들의 유인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군에서는 추가로 농산물 판매능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진안고원 주말시장 내방객 증가

진안고원 주말시장의 내방객이 지난 10월 15일 첫 개장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마이산, 구봉산 등 내방객의 진안 전통시장 위치를 목적으로 하는 진안고원 주말시장은 개장 이후 꾸준히 내방객이 증가하면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2,500명 이상이 방문하여 수삼, 더덕, 흑태지 등 특산물과 함께 배추 등 제철 농산물을 구입해 갔다. 특히 주말시장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을 시중가 보다 10% 할인하여 판매함에 따라 내방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말시장 운영에 따라 평소 주말에

진안고원 주말시장의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다. 주말시장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진안시장 중앙광장 내에서 운영된다. (직거래 참여 문의전화: 063-430-2951) /진안=우태만 기자